



발명으로 만드는 일자리,
특허로 더하는 행복



보도자료

www.kipo.go.k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문 의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과 장 이선우 사무관 복상문	042-481-5931
	2016년 5월 12일(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5월 11일(수)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미래 먹거리 찾는 특허빅데이터 허브 출범!

- 특허청, '국가 미래전략 특허분석센터' 개소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핵심기술별로 정제된 고급 특허DB와 특허분석 전문인력을 갖춘 '국가 미래전략 특허분석센터'(이하 '특허분석센터')를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내에 개소하고 특허분석에 기반한 미래 R&D 전략 수립, 유망 기술·기업 발굴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수) 밝혔다.

전 세계에 공개된 3억여 건의 특허는 고급 기술정보인 동시에 각국 특허청이 검증한 권리정보로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특허빅데이터를 잘 분석하면 기술의 발전 방향은 물론, 원천·핵심특허를 선점할 수 있는 유망기술도 찾을 수 있어 R&D 과제 발굴·기획 등에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래 먹거리 기술을 찾는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12년~'15년까지 전 산업분야의 4,300여개 핵심기술 관련 국내외 유효특허 290여만 건을 심층 분석하여 유망기술 200여개와 유망 R&D 과제 545개를 발굴하였고, 이중 49%(266개 과제)는 실제 각 부처 R&D 기획과제로 반영되었다. 청사진 특허분석 정보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1월 국민설문으로 선정한 '2015년 국민에게 유용한 공공정보 10선' 중 5위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금년에는 이러한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거점으로 ‘특허분석센터’ 개소를 추진하였다. 그간 확보한 290만 건의 특허정보를 소송·기술이전 정보, 기업 정보, R&D 투자 정보 등과 연계하여 DB화했다.

특허DB의 기술체계는 표준산업분류(KSIC), 과학/산업기술분류 등 산업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분류체계와 직접 매칭되도록 구성 중이다. 이 기술체계를 활용하면 특허관점에서 각 산업별·기술별 트렌드를 쉽게 비교·분석할 수 있다. 또한, 실제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전문인력 (석·박사 인력 5명 포함, R&D/특허분석 경력 평균 11.3년) 9명도 확보하였고, 외부 소통 창구로 산·학·연·관 전문가 20여명으로 통합전략위원회도 구성하였다.

이날 개소식에는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과 변훈석 한국지식 재산전략원 원장을 비롯하여 정부 R&D 전문기관, 민간 협회, 기술금융 관련기관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개소식 후에는 통합전략위원회 위원들과 정부·민간 R&D 및 기술금융에서 특허빅데이터 활용방안과 특허 분석센터의 역할에 대한 패넬토론도 진행하였다.

향후 ‘특허분석센터’는 산업계 수요와 연동되는 최신 특허DB 유지, R&D 유형·목적별 맞춤형 특허분석 지원, 특허·기술·기업정보의 연계·융합 등을 총괄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에는 ①정부 R&D 기획을 위한 특허관점의 유망기술·과제 발굴, ②민간기업·협회 대상 맞춤형 특허 분석 정보 제공, ③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허관점의 유망기업 발굴 및 기술신용평가기관(TCB)·기술정보DB 등과 연계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그간 특허정보는 표준산업분류 등과 기술체계가 달라 산업·기술 단위의 대규모 특허분석을 수행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었다”면서 “특허분석센터가 확보한 산업·기술·기업 연계 특허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국가 차원의 미래 R&D 전략 수립, 미래 유망기술·기업 발굴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개소식 개요

- (목적) 既 구축한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데이터의 정부·민간 R&D, 기술금융 등에 활용·확산을 위한 거점으로 '특허분석센터' 개소 추진
- (일시·장소) '16. 5. 11(수)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 8층(한국지식재산전략원)
- (참석)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한국지식재산전략원장, 정부·민간 R&D 유관기관 전문가, 기술금융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명

‘국가 미래전략 특허분석센터’ 역할 및 구성

- ▶ (역할) 청사진 특허DB 보완·관리, 특허관점의 유망 기술·기업 발굴, R&D 유형·목적별 맞춤형 특허분석, 특허·기술·기업정보 연계·융합 및 특허분석 방법론 연구 등
 - *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지식재산전략원(창의혁신팀)이 센터 역할 수행
- ▶ (구성) 전 산업분야에 대한 유효특허의 서지정보, 소송·기술이전·기업정보 등으로 구성된 특허DB와 이를 기초로 자체 특허분석을 수행할 전문 인력*으로 구성
 - * (센터인원) 총 9명으로 석·박사 인력 5명 포함, R&D/특허분석 평균 경력 11.3년)

□ 개소식 일정(안)

일 정	구분	내 용	비고
14:00~14:10 (10분)	1부	개회 선언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개회사 및 축사	원장/국장
14:10~14:30 (20분)		(발표) 국가 미래전략 특허분석센터 역할 및 향후 활용 계획	전략원 (배진우)
14:30~14:50 (20분)		센터 제막식 및 기념촬영(중앙복도)	주요 내외빈
Break time			
15:00~16:00 (60분)	2부	패널 토론 (특허데이터 활용방안, 개선사항 등)	통합전략 위원회

※ 특허/기술/기업 정보 교류 등을 위한 전략원-NICE평가정보 MOU는 별도 체결(11시)

참고2

국가 미래전략 특허분석센터 개요

- (DB) 전 산업분야 전략기술체계에 따른 국내외 유효 특허DB 구축
 - '12년~'15년까지 청사진 구축으로 확보한 4단계 IP전략기술체계의 280만 건 유효데이터, 200여개 미래유망기술 정보 등을 DB화

기술분류체계				유효 특허	유망기술	유망과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핵심기술			
130	487	1,720	4,328	2,880,881	200개	545개

- 개별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특허 서지 정보와 추가적인 소송정보, 기술이전 정보, 기업정보 등 고급 정보 필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산업(표준산업분류 체계 등), 기술별(6T, 산업기술분류 등) 분류 기준과 호환성을 강화하여 환경 및 정책 변화에 유연성, 적시성 있는 분석 체계 마련
- 자체 청사진 DB H/W 및 S/W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원문정보는 외부 DB(특허정보진흥센터, 공개토연연구소 등)와 연계

- (인력) 자체 특허분석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 구축된 DB를 기초로 특허분석전문가(PA, Patent Analyst)*가 의해 객관적이고, 적시성 있는 심층 특허분석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공

* '16년, 총 9명 중 석·박사 인력 5명, R&D/특허분석 평균 경력 11.3년

- 청사진 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원 창의혁신팀에서 센터 기능 수행

* '국가 미래전략 특허분석센터' 센터장은 창의혁신팀장이 겸직

